

“ ‘달의 연인’, 이준기 인생작 될 것”

SBS 새 월화 드라마
29일 첫방송

배우 이준기(34)가 다시 한 번 사극으로 돌아온다. SBS 새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러(연출 김규태, 극본 조운영, 이하 달의 연인)다.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여덟 활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준기는 앞서 드라마 '일지매'(2008) '어랑 사또전'(2012) '조선총잡이'(2014) '밤을 걷는 선비'(2015) 등에 이어 이미 다섯 편의 사극에 출연했다.

이번 작품은 그의 삼연속 사극이기도 하다.

이준기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달의 연인' 연출을 맡은 김규태 PD 또한 "전작들과는 다른 이준기를 볼 수 있다. 아마 이준기의 인생작이 될 것이다. 이준기 신드롬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작품은 여러모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준기를 비롯해 이지은(아이유)·강하늘·홍중현·남주혁·백현(엑소)·지수·윤선우·서현('소녀시대') 등 청춘스타들이 총 출동하는 것은 물론, '팬텀아 사랑이야'(2014)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아이리스'(2009) 등을 연출한 김규태 PD가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준기는 "김규태 PD는 배우라면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이라며 "그가 만든 드라마의 영상미, 작품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김규태 PD와 함께 하면 내가 발전할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에서 열린 SBS 새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러'(연출 김규태) 제작발표회에서 홍중현(왼쪽부터), 지수, 백현, 강하늘, 이준기, 남주혁, 김산호, 윤선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준기가 맡은 4황자 '왕소'는 차가운 가면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는 인물이다. 왕소는 개기 일식날 고려 시대로 넘어와 고려 소녀 '혜수'가 된 현대 여인 '고하진'을 만나면서 점차 마음을 연다. 지은이 바로 혜수(고하진)를 연기했다. 이준기는 이지은과의 연기 호흡에 대해

"전작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원통에 가깝다. 많은 걸 보여줘야 해서 기대도 걱정도 있었다"며 "촬영하면서 신뢰가 많이 생겼다. 빠른 시간 안에 역할을 분인 것으로 만드는 스타일이더라. 2, 3회차 촬영부터는 함께 연기하는 게 기대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준기는 "다른 황자들 사이에 걸 수 없

는 나이다. 황자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했다.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 안에서 쓰임새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신구의 조화, 신구의 화합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의 연인'은 29일 첫 방송된다. 1, 2회 연속 방송이다.

/김민근기자

전북바둑협회, 신입 회장에 오인섭 취임

제 4대 전라북도바둑협회장에 오인섭(사진) (주식회사 아시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24일 전주르원호텔에서 열린 협회장 이취임식에는 바둑 협회 임원, 고문, 선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승수 전주 시장, 박성일 원주군수,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의 내빈도 자리를 함께했다.

오인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임원과 각 지회장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전북 바둑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바둑이 옛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5일만의 등판 오승환, 10닝 퍼펙트

5일 만에 등판한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오승환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팀이 8-1로 앞선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퍼펙트 호투를 펼쳤다.

오승환은 지난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20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구원승을 거둔 후 이날 전까지 휴식을 취했다. 지난 5일만 등판이 없었던 만큼 그의 경기 감각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닝 동안 공 12개를 던진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종전 1.82에서 1.79로 내려갔다.

9회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선두 타자 알레한드로 데아자에게 2루수 땅볼을 유도한 뒤 제임스 로니를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오승환은 아스트로볼 카브레라 역시 6구만에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시즌 전적 67승58패)를 유지했다.

/김민근기자

아쉬운 동메달... 이대훈, “앞으로도 태권도 재미있게 하겠다”

“올림픽 나가지 못해도 한국 태권도 위해 열심히”

"일단 태권도 선수이니 재미있게 태권도를 할 생각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면 좋겠지만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선수도 많아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아쉬움을 남긴 이대훈(24·한국가스공사)이 2020년 도쿄올림픽 도전 여부를 묻자 내놓은 답이다.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이대훈은 신중하게 답변했다.

사실 이대훈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그만큼 남자 88kg급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훈은 이번 올림픽 8강에서 패배해 패자부활전으로 밀렸고 동메달 결정전을 거쳐 동메달을 따는데 만족해야 했다.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도 이대훈이 복에

건 메달은 '은색이었다. 이대훈은 다시 한 번 그랜드슬램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대훈의 표정은 밝았다.

이대훈과 오혜리(28·춘천시청),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 김태훈(22·동아대), 차봉민(30·한국가스공사) 등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태권도 대표팀 5인방은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대훈은 "빈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국민들이 잠도 설치며 응원해 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른 시간부터 마중을 나와주신 분들이 많아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대훈은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전했다.

8강에서 패배한 후 상대인 아흐메드 아부가우시(요르단)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박수를 보내 감동을 선사한 이대훈은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 선수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생각이 경기장에서 나온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두 차례 올림픽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이대훈은 아직 어리다. 4년 뒤 도쿄올림픽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

이대훈은 4년 뒤 올림픽 도전 여부를 묻자 "태권도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권도를 재미있게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올림픽에 나가면 좋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선수가 많다"며 "올림픽에 나가지 못해도 한국 태권도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미래를 기약했다.

/김민근기자



리우올림픽 태권도 대표팀 이대훈 선수가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류현진 “올 안에 복귀 시도하겠다”

류현진(29·LA 다저스)이 올 시즌 내에 마운드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LA타임스의 앤디 매켈루 기자는 25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이 올해 안에 복귀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다저스 구단 측에 전했다"며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곧 투구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왼쪽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지난 7월8일 샌디에이고전을 통해 약 21개월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

하지만 2번째 등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인 어깨가 아닌 팔꿈치에 이상이 생겼다. 이에 류현진은 지난달 20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고, 이달 2일에는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감독의 '시즌 아웃' 선언 이후 류현진이 복귀의사를 드러낸 것이지만 시즌 종료(10월3일)까지 5주 가량 남은 시점에서 그가 모든 재활 과정을 통과하고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